

이수화학, 임재경 대표이사 내정

윤신박 사장은 이수건설로 ... 생명공학관리본부장에 이경표 전무

2004년 4월 지주회사 체제로 본격 출범한 이수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확립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이수그룹은 6월15일 윤신박 이수화학 사장을 이수건설 사장으로, 현 이수화학 임재경 공장장을 이수화학 대표이사(부사장)로 각각 내정했다.



윤신박 이수건설 사장



임재경 이수화학 부사장

급변하는 국제유가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수화학 이경표 부공장장(전무)은 이수화학 생명공학관리본부장(전무)로, 김청채 NP생산부서장 상무는 이수화학 공장장(상무)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최근 연착륙하는 부동산 경기에 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수창업투자 제민호 상무보는 대표이사(상무보)로, 이수창업투자 채운 대표이사 전무는 이수건설 관리본부장(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으며, 이수건설의 이상태 관리본부장 전무는 사업총괄담당 전무로 보직 변경했다.

이수그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외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이에 따른 그룹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원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6/16>